



美, 복합醫藥品 特許認定 요구

227個品目, 不應엔 301條 提訴 報復 압력

美國정부가 지난 80년1월1일부터 87년7월1일 이전까지 美國에서 特許權을 획득한 醫藥品에 대한 韓國내 特許權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통상법301조로 제소하겠다고 나서 관계당국과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美國정부는 처근 駐韓 美대사관을 통해 2백77개에 달하는 복합성분의 약품의 未市販物質 特許(美國에서 特許權을 획득했으나 아직 韓國에서 상품화·시판을 하지 않고있는 상태의 物質特許) 명단을 우리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했으며 오는 5월 초 열리는 실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결말짓기 위한 협상을 하자고 제의해 왔다는 것이다.

美國이 요청한 복합성분의 약품의 미시판 物質特許를 우리정부가 인정할 경우 그 대상에 포함된 醫藥品을 국내업체가 생산, 시판하려면 美國 特許權者의 허가를 얻어 特許料를 부담해야한다.

美國정부는 당초 9백11개 단일성분 醫藥品과 복합성분 醫藥品에 대한 미시판 特許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와 우리 정부는 美國과 6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이중 6백34개 단일성분의 약품은 特許를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2백77개 복합성분 醫藥品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美國은 그러나 2백77개 복합성분 醫藥品에 대한 미시판特許도 인정돼야 醫藥品에 관한 韓美간 무역마찰요인이 해소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01조 제소등 무역보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이들 복합성분 醫藥品에 대한 국내업체의 생산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시판 物質特許인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日本, 意匠制度 일부 改正 早期 審査 및 審理制度 導入

日本特許廳은 처근 意匠制度의 일부를 改正, 지난 3월1일부터 시행적으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特許廳에 따르면 이번에 改正된 주요 內容은 意匠의 權利化에 있어 긴급성을 요하는 實施 出願에 관한 早期審査및 關聯 審判事件에 대한 早期審理制度의 導入이다.

日本特許廳이 이 制度를 導入한것은 年間 意匠出願件數가 5만件이 넘고, 현재 審査 미처리件數가 12만件이 넘어, 意匠

審査處理期間이 평균 2年3個月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意匠審判事件의 미처리件數도 7천件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따라 그 處理期間은 평균 4年8個月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制度의 導入에 따라 日本은 早期審査의 대상이 되는 意匠登錄出願 關聯 審判事件으로서 先行意匠調査등의 충분한 協力을 얻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早期에 그에 대한 着手이 이루어짐으로써 處理期間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NCIB 名稱 변경

寄託요금도 일부 引上

英國및 北아일랜드의 박테리아 國際기탁기관인 NCIB의 명칭이 NCIMB로 바뀌는 한편 그 寄託요금도 일부 引上됐다.

요금 引上 내역을 보면 ▲微生物의 보관은 3백 파운드 ▲

規則 10·2에 의한 生存증명서 發行은 50파운드 ▲規則 11·2 또는 11·3에 의한 試料의 분량은 25파운드+운반의 실제 비용등이다. 引上日時는 3月30日부터. <※>